

책으로 사회를 읽다 우리는 언어의 지배로부터 자유롭길 원한다 「훈의 시대」



글. 이하민 북칼럼니스트 / 前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인문상상프로젝트 기자

인간에게 언어는 아주 오랫동안 함께 해온 동반자 같은 존재다. 언어 덕분에 우리는 다른 사람과 소통하며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고, 마침내 국가와 문명을 탄생시키는 데 이르렀다. 그런데 인간은 때로 언어에 대해 매우 무감각해지기도 한다. 너무 익숙해서 그럴까. 특히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나 조직, 더 나아가 한 시대가 내뿜은 언어에 대해서 말이다. 이들의 언어는 단순히 친구 사이에 일대일로 오가는 언어와 다르다. 공동체에 속한 개인을 통제하고 규율하며 가르치는 언어다.

저자인 김민섭 작가는 공동체가 언어를 통해 어떻게 개인을 규정하고 자신들의 욕망을 충족하는지 파악하고자 했다. 그리고 그러한 언어를 ‘훈’이라고 정의했다. 여기서 훈은 한자어 ‘訓(가르칠 훈)’을 말한다. 즉 집단에 소속된 개인을 가르치기 위한 교육의 언어이자, 한 시대의 욕망을 집약한 언어인 것이다. 저자는 훈이 매우 자연스럽게 우리의 사고방식과 삶을 규정한다고 보았다. 문제는 훈이 개인의 고유한 정체성을 억압할 위험이 높다는 점이다. 어느 공동체에 속한 개인이라면 누구도 훈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그래서 저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훈의 시대로 규정했다.

저자는 훈을 크게 3가지로 분류했다. 학교의 훈, 회사의 훈, 개인의 훈이다. 이들 각각이 어떠한 훈을 사용하여 사람들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는지 세밀하게 밝혔다. 특히 연구자로서 구체적인 사례와 데이터를 통해 실증하는 것도 놓치지 않았다.

개인보다 집단을 우선하는 훈

학교는 개인이 성숙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공간이다. 그러나 동시에 수많은 훈이 학생들을 규율하는 통제와 억압의 장소이기도 하다. 저자는 특히 여자고등학교에 주목했다. 지금은 많이 해소되고

있으나 가부장적인 한국 사회에서 학교가 어떤 방식으로 여성들을 규정해왔는지 날카롭게 분석했다.



학교는 훈을 통해 학생들을 가르치고 사회성을 길러낸다

근대적인 학교가 설립된 이래 여학생들은 교육 현장의 주변부에 머물러 있었다. 저자는 남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는 ‘고등학교’, 여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는 ‘여자고등학교’로 지칭하는 것부터 그 증거라고 보았다. 전통적인 유교 사회에서 학문은 남성들의 전유물이었고, 근대화된 이후에도 그러한 관념이 이어져 여성들이 학교에 다니는 것을 예외적인 경우로 치부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 의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당황스럽더라도 시간이 흐르면 내 몸처럼 익숙해지는 게 훈이다. 우리나라의 여학생들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자신들을 주변부로 인식하며 위축된 주체로 여기게 되었다고 저자는 말한다.

교훈과 교가 역시 학생들을 특정 방식으로 가르치려는 욕망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저자는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 개교한 공립학교들의 교훈 및 교가에 나타난 단어들을 뽑아 분석했다. 여기서 단어는 이를 사용하는 주체의 욕망이 담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한 마디로 훈의 기본단위이다. 겉보기에는 일상에서 쓰이는 평범한 단어라 해도 그것이 훈으로 쓰이면 의미가 확연히 달라진다. 이러한 이유로 저자 역시 책 전반에 걸쳐 단어에 주목하는 모습을 보인다.

저자에 따르면 여고의 교훈에서는 순결, 정숙, 예절, 배려, 사랑, 겸손 등의 단어가 많이 나타났다. 반면 남고는 단결, 용기, 개척, 책임, 명예, 열정 등의 단어였다. 주목할 점은 나열한 단어들이 상대편 학교의 교훈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교가에서도 이런 경향은 그대로 유지된다. 역사가 오래된 학교일수록 여성이나 어머니의 역할을 강조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저자는 학교가 그동안 한국 사회가 여성에게 기대했던 역할을 일방적으로 주입해 왔다고 주장한다. 여학생들은 학생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라,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순응하고 희생해야 하는 유교적 여성상을 먼저 배웠다는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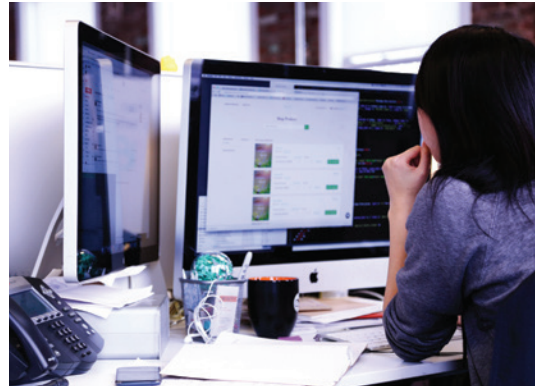
학교는 훈을 통해 학생들을 가르치고 사회성을 길러낸다

저자는 덧붙여 학교가 맹목적으로 공동체에 충성하고 순응하도록 가르쳤다고 비판했다. 그 예로 ‘조회 시간’을 들었다. 학생들은 매주 월요일 아침이 되면 운동장에 집합해 교장 선생님의 훈화를 들었다. 문제는 그 방식이 군대 문화를 연상케 할 정도로 강압적이었다는 점이다. 한여름 띄약벌에서 부동자세로 교장의 훈화를 들어야만 했다.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는 모습이 보이면 교사들이 엄히 다스렸다. 저자는 전체주의적 규율에 익숙해진 개인을 얻고자 하는 우리 사회의 욕망이 반영된 결과라고 보았다. 물론 요즘의 학교에서는 이런 식으로 조회를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1990년대 이전 학교가 학생들을 어떻게 다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다.

회사는 이익 창출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 구성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따라서 회사라는 공간의 훈 역시 직원 개개인들을 통제하고 규율하는 데 매우 충실하다. 저자는 회사의 훈이 때로는 국가의 훈인 헌법보다도

개인에게 더 강한 권력을 행사한다고 말한다. 회사는 한 개인과 그 가족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책에 따르면 국내 초일류 기업 삼성은 1993년 신경영을 선언하며 <삼성인의 용어>를 발간했는데, 삼성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규칙을 두고 ‘삼성 헌법’이라 규정하기도 했다. 회사의 훈은 개인에게 마치 헌법과 같은 위상을 지니는 것이다.

회사의 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회사를 대상으로 한 훈이고, 다른 하나는 회사의 직원을 대상으로 한 훈이다. 회사를 대상으로 한 훈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고객, 만족, 기쁨이었다. 즉 고객의 만족과 기쁨이 최우선이라는 의미다. 한때 ‘손님은 왕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기업에 소비자의 위상은 절대적이었다. 요즘에는 비판을 받는 말이지만 기업의 특성상 여전히 소비자나 고객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일부 몰상식한 소비자들의 ‘갑질’이 나타나는데, 문제는 회사가 아닌 현장의 직원들이 이를 감내하게 된다는 것이다. 저자는 기업이 매출을 올리고자 소비자와 판매자 사이에 위계를 부여하고 정작 자신은 몸을 숨겼다고 비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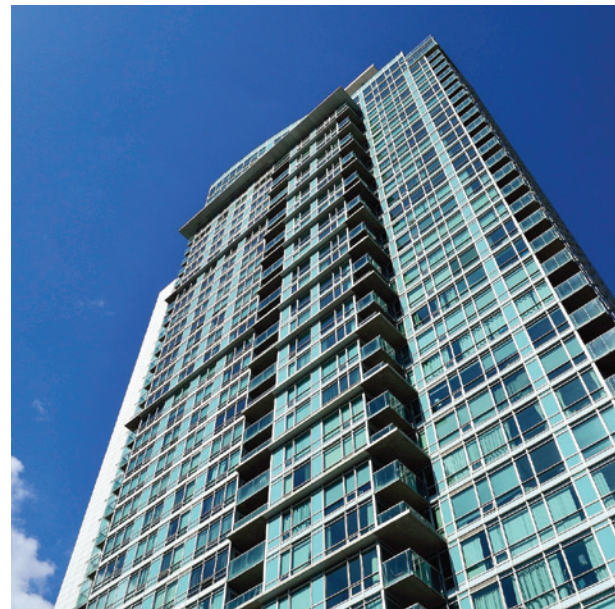


회사는 고객 만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직원에게 도전, 열정, 적극이라는 훈을 지시했다. 겉보기에는 좋은 단어이지만 도전적이고 열정적인 개인은 회사의 이익에 복무할 때에만 인정받는다. 개인이 행복하고자 하는 욕망,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자 하는 욕망은 허락되지 않는다. 저자는 이러한 회사의 훈들이 우리 사회를 천박하게 만들고 개인을 자본의 대리 인간으로 만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타인을 배제하는 폭력적인 훈

앞서 살펴본 학교와 회사의 훈은 개인의 주체적인 삶보다는 공동체의 발전과 번영을 우선시했다. 처음에는 이것이 불합리하게 느껴져도 차츰 익숙해지면 어느새 공동체의 훈에 충실한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그런데, 공동체를 중시하는 훈은 매우 폭력적인 방향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 바로 차별과 배제의 표출이다.

저자는 인간에게 자신이 주거하는 공간을 특별하게 만들고 싶은 욕망이 있다고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아파트’가 그 욕망의 대상이다. 2000년 전후로 일명 ‘브랜드 아파트’가 등장하면서 아파트는 단순한 공간 이상의 의미를 갖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대치동 삼성아파트’처럼 지역과 건설사의 이름이 붙었지만, 이제는 ‘고덕 래미안 힐스테이트’, ‘동탄 자이 더테라스’ 등 고급스러운 수식어가 덧붙게 된 것이었다. 특히 건설사들은 유명 연예인을 광고 모델로 내세우면서 “당신이 사는 곳이 당신이 누구인지 말해 줍니다” 같은 노골적인 훈을 전달하기 시작했다. 저자는 이때부터 아파트의 브랜드가 개인의 품격을 담보한다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아파트는 현대인의 욕망의 상징이 되었다.



아파트에 설치된 담장

특별함을 과시하고픈 욕망은 곧 내부 구성원의 결집으로 이어졌다. 브랜드 아파트에서 주민들의 교류는 더욱 활발하게 일어났으며, 이들 사이에 끈끈한 공동체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이는 같은 브랜드 공간 안에서만 발현되는 것일 뿐, 외부의 타인들에겐 더욱 폐쇄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었다. 너와 나를 구분함으로써 자신들의 특별함이 증명된다는 인식이 밑바탕에 깔려 있었기 때문이다. 단순한 단절을 넘어 차별과 배제라는 폭력이 나타나기도 했다. 저자는 이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사례를 제시한다. 철통 보안의 스크린 도어, 높은 성곽 같은 담벼락은 기본이고 경비원에 대한 차별도 이미 우리에게 익숙한 사례였다. 심지어는 초등학교에서 아파트 단지를 구분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교복을 입히자는 입주민의 사례도 있었다.

새로운 시대를 여는 혼을 향해서

저자는 책 전반에 걸쳐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혼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혼이 개인의 주체적인 의식을 억압하고 외부 세계와 타인을 배격하도록 만든다고 본 것이었다. 공동체의 가치를 중시하는 일부 독자들은 책을 읽으며 비판적인 감정이 들 수도 있겠다. 아마 저자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규칙과 언어의 필요성을 지나치게 경시한다는 생각일 것이다. 타당한 생각이다. 나 역시 책 중후반까지 마음 한편에 그런 의문이 계속 들었다. 인간은 공동체를 이루며 사는 존재이고 공동체는 구성원의 통합에 의해서 유지되기 때문이다. 혼이 바로 공동체의 통합을 달성하는 데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저자는 정말 혼이 백해무익하다고 생각했을까? 아니다. 책 말미에 그는 우리 사회에 필요한 새로운 혼을 제시한다. 바로 공동체를 이루는 개인을 존중하며,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연결이라는 감각을 끌어낼 수 있는 혼이다. 개인의 자율성을 무시하는 혼은 곧 공동체에 대한 맹목적인 순종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른 공동체와 개인을 배격하는 결과로 나타난다고 보았다. 이렇게 보면 저자는 결코 삭막한 개인주의적인 사회를 지향했던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욱 아름답고 이상적인 공동체를 꿈꾸었다. 즉 집단과 개인이 서로를 존중하고 외부인을 포용하는 따뜻한 공동체다.

오랫동안 이어져 왔던 혼을 바꾸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공간의 언어에 한번 익숙해지면 이를 객관적으로 인식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자는 우리 모두가 ‘사유하는 개인’이 될 것을 제안한다. 자신이 속한 공간과 그 언어에 끊임없이 물음표를 던져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다 보면 당연하게만 보였던 혼의 문제들을 하나둘 깨닫게 된다. 그리고 마침내 새 시대에 어울리는 새로운 혼을 얻게 될 것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이 이를 실천할 때 그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혼의 시대’는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 돌아보게 한다. 그리고 모든 사유와 인식의 밑바탕에는 언어가 자리하고 있음을 상기시켜 준다. 인간이 어떤 언어를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사는 모습이 결정된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 깊이 깨닫게 되었다. 